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트럼프의 새 관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일 듯
- ◇ (분석)-8월 2차 MSCI 리밸런싱, 증시 '셀 코리아' 촉발할까..파급 효과 가능하기
- ◇ (초점)-코스닥 3개월 연속 하락하며 7월 마감...바이오주 몰락에 속수무책
- ◇ (초점)-한은 7월 전망에 빠졌던 이벤트들 속속..1%대 성장 가시화
- ◇ (시장진단)-달러/원 1200 원 초읽기 들어 가자 외환당국 석 달 만에 개입 단행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준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한 경찰관이 송환법 반대 시위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로이터/타이런 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98.0	-1.1%	-6.9%	-4.1%	유로	1.1107	-0.2%	-3.2%	-4.4%
100엔 대비	1,129.8	-3.6%	-10.1%	-6.9%	엔	106.58	2.0%	2.8%	2.8%
유로 대비	1,337.9	-1.6%	-4.6%	0.2%	위안	6.8979	-0.4%	-0.4%	-5.3%
위안 대비	173.50	-0.9%	-6.8%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485.01	-2.6%	13.5%	-5.6%
코스피	1,998.13	-3.3%	-2.1%	-17.3%	나스닥	8,004.07	-3.9%	20.6%	-3.9%
코스닥	615.70	-4.5%	-8.9%	-15.4%	S&P500	2,932.05	-3.1%	17.0%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04.19	-4.2%	5.7%	-16.2%
국고채 3Y	1.260%	-4.8bp	-55.7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290%	-5.6bp	-59.4bp	-45.9bp	미국채 2Y	1.710%	-15.0bp	-78.8bp	60.7bp
국고채 10Y	1.349%	-7.7bp	-59.9bp	-52.1bp	미국채 10Y	1.843%	-23.0bp	-84.8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5.66	-1.0%	22.6%	-24.8%	한국 5Y	28.74	0.82	-9.32	-13.74
금(현물)	1,440.46	1.6%	12.3%	-1.5%	일본 5Y	19.63	-0.12	-2.16	-3.34
TR상품지수	2,310.86	-3.2%	-2.6%	0.0%	중국 5Y	45.04	6.39	-21.43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월 5일(월)>

- 기재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09:30)
- 기재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15:00)

<6일(화)>

- 한은, 6월 국제수지(08:00)
- 한은, 7.18 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7일(수)>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09:00)
- KDI 경제동향(12:00)
- 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 분석(12:00)

<8일(목)>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2:00)

<9일(금)>

- 기재부, 8월 최근경제동향(10:00)
- 한은,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월 5일(월)>

- 일본, 7월 서비스업 PMI (9:30)
-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7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17:00)
- 유로존, 8월 섹터스지수 (17:30)
- 미국, 7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7월 고용추이 (23:00)

<6일(화)>

- 미국, 7월 전미 차량(트럭)판매 (6~13일)
- 일본, 6월 가계지출 (8:30)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3:30)
- 일본, 6월 경기 동행/선행지수 (14:00)

<7일(수)>

- 일본은행(BOJ) 7월 29-30일 회의 정책위원 의견 요약본 공개(8:50)
- 일본, 7월 외환보유고 (8:50)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11:00)
- 중국, 7월 외환보유고 (17: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8일(목)>

- 미국, 6월 소비자신용 (4:00)
- 일본, 7월 은행대출 (8:50)
- 일본, 6월 경상수지 (8:5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도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6월 도매판매 (23:00)
- 중국, 7월 수출입 (미정)

<9일(금)>

- 일본, 2분기 GDP (8:50)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 (10:30)
- 중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0:30)
- 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30)
-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1:30)
- 중국, 7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9~15일)
- 중국, 7월 위안화 신규대출 (9~15일)

<외환시장>

- 이번 주 원화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200 원대로 진입하며 추가 약세 압력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 예상 범위는 1190-1210 원이다.
- 미-중 갈등 격화에 한-일 갈등까지 겹쳐 최근 원화 약세는 진행형이다.
-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지난 주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독일의 모든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에서 거래됐다.
-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450 달러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 이번 주 국내외 주요 지표 발표나 특별한 일정이 없는 만큼 달러/원 환율은 1200 원대에서 대내외 심리에 따라 움직일 공산이 크다.
- 달러/원 1200 원대에 대해 시장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 반영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다만 1200 원대에서 불안한 심리가 확산되거나, 시장 풀림에 따른 환율의 급등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외환당국은 개입에 나서며 시장 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2000 선이 무너진 코스피지수와 1200 원을 위협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며 방향성을 가늠할 전망이다.
-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 기재부는 오는 7일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한다. 여기엔 올해 1~6월까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등이 담기는데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내년 국채발행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은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9일에는 기재부가 그린북을 발표한다.
- 한국은행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한다.

(초점)-트럼프의 새 관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일 듯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깜짝 발표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를 무역정책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초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러 건의 트윗을 통해 무역협상 진행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오가 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폭탄에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국채 수익률은 근 3년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24시간 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5bp 인하가 긴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타격을 입었던 금리선물 시장에 매수주문이 쇄도했다.

1일 거래 종반 즈음 시장은 연준이 정책을 현저하게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완전히 되살렸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오늘의 발표는 연준이 올해 총 75bp 이상을 인하할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무역 정책은 이미 파월 의장이 31일 제시한 금리 인하 이유 중 하나였다.

파월 의장은 기존의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와 투자에 냉각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부진한 글로벌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도 금리 인하 결정에 고려됐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전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사이클 중간의 조정'이라면서 보험성 정책임을 강조했다.

연준이 이런 제한적 인하 계획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루 브라이언 DRW 홀딩스 애널리스트는 무역 문제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악화된다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사이클 중간의 조정으로 여겨지지 않고, 침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더들은 새 관세 부과로 좀 더 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베팅하고 있다.

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현재 트레이더들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일의 50% 미만보다 현재저기 높아진 81.9%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리선물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연말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31일 오후 39%에서 68.9%까지 높여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수익률 역전폭은 1일 1bp에서 18bp로 확대됐다. 이같은 수익률 역전은 경기 둔화가 진행중이며 연준 정책이 너무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리처드 번스타인 CEO는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연준의 긴축처럼 작용한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활동을 방해한다. 완전한 스태프"이라고 말했다.

(분석)-8월 2차 MSCI 리밸런싱, 증시 '셀 코리아' 촉발할까..파급 효과 가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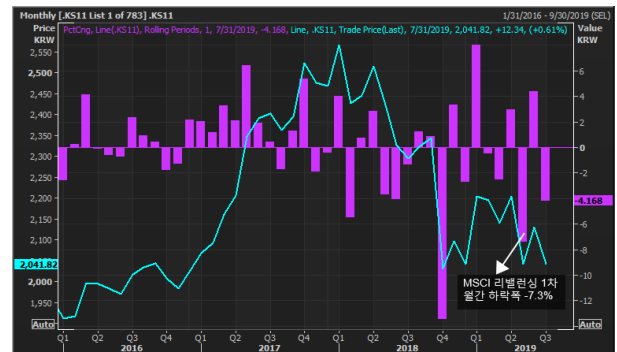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미 상수가 된 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갈등과 경기 급랭 등 독자적인 악재까지 쌓여가는 가운데 8월에는 한국 증시에 MSCI 리밸런싱 관련 수급 악재가 석 달 만에 다시 불거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벤치마크 제공 회사인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작년 5월과 8월 중국 A주를 신흥국지수에 일부 편입시킨 데 이어 올해는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편입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까지 덮치면서 7월(30일 기준) 코스피는 4% 이상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 추가 MSCI 리밸런싱을 둘러싸고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바람까지 분다면 한국 증시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코스피 수급 여건은 올해 중 최악이었고, 그에 따라 MSCI 리밸런싱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지난 5월 코스피는 7.3% 급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간 낙폭 기준 4위를 기록했다. 같은 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2.5조원 상당의 국내 유가증권들을 대거 순매도해 올해 유일하게 월간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 증시 하락의 원인 가운데는 MSCI 리밸런싱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5월 MSCI는 신흥국지수 내 중국 A주 대형주 편입 비중을 5%에서 10%로 높였고, 사우디아라비아 비중도 50% 신규 편입시켰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100% 새로 편입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외국인은 프로그램 비차익거래로 코스피를 1.9조원 순매도했고, 그 중 1조원은 리밸런싱 작용 일 전후 4거래일 동안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렇다 보니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MSCI 리밸런싱 영향은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수급 악재, 어느 정도?

MSCI 신흥국지수 중국 A 주 비중 확대는 5 월에 이어 8 월과 11 월에 예정돼 있는데, 8 월에는 중국 A 주 대형주 편입 비중이 10%에서 15%로, 사우디아라비아는 50%에서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한국 비중은 0.3%p 축소될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MSCI 2 차 리밸런싱 기준일인 8 월 28 일에는 지난 5 월처럼 MSCI 신흥국지수 추종 자금 이탈로 인해 국내 증시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스피는 올해 들어 0.1% 하락(30 일 기준)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S&P500(+20%), 중국 상해(+18%),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10%)에 비하면 코스피 성적은 초라하다.

그나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1 차 때보다는 8 월 비중 조정에 따른 수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관련 외인 자금 이탈 규모가 1.5 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지배적이다. 지난 5 월 리밸런싱 때 MSCI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중은 0.4%p 하향 조정됐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이번 8 월말 리밸런싱에 따른 한국 주식 매도는 5 월보다 적을 것"이라면서 "패시브 자금 주식 매도를 1.5 조원 내외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 월 리밸런싱 기간 중 외인들이 대규모 국내 유가증권을 매도한 원인은 리밸런싱 영향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결렬에 따른 신흥국 증시 약세와 이에 따른 자금 이탈 압박이 컸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5 월 국내 증시의 외인 매도가 리밸런싱이 주원인이자라면 국내 증시의 아웃플로우가 중국 A 주와 사우디 지수 편입 수요로 연결됐을 텐데 각 지수의 5 월 수익률은 -7.0%, -8.5%를 각각 기록하면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MSCI 한국 구성 종목의 5 월 28 일 외인 순매도 금액인 7356 억원을 감안하면 8 월말 매도 수요는 5517 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미-중 갈등에 이어 한-일 갈등까지 겹쳐진 데다 국내 기업 실적 부진 압박까지 커지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수급과 심리 모두 취약해진 상황에서 MSCI 리밸런싱 관련 수급 변화는 증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요즘처럼 뚜렷한 호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이슈는 더욱 부정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8 월말 전후로 MSCI에 편입된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초점)-코스닥 3 개월 연속 하락하며 7 월 마감...바이오주 몰락에 속수무책

서울 (로이터) 박윤아 기자 - 코스닥지수가 지난 2015 년 9 월 이후 처음으로 3 개월 연속 하락하며 7 월 마지막 거래를 끝낸 가운데, 당분간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무력감이 확산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31 일 장중 2 년 4 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후반 반등에 성공해 전날보다 4.54 포인트, 0.73% 상승한 630.18 포인트에 7 월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월간으로는 8.7% 하락하면서 3 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15 년 7-9 월 이후 최장기 연속 월간 하락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시장보다 단조로운 업종 구성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한꺼번에 꺼졌을 때 이를 대체할 새 업종이 등장하지 않아 지수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정부의 대책과 바이오 랠리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1 월에만 해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약속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투자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바이오 업황도 흔들리면서 코스닥지수는 이후 30% 넘게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00 조원 넘게 증발했다.

코스닥의 부진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은 물론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와 비교해도 초라하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가증권시장 대형주와 같은 완충목이 없다는 코스닥의 한계점으로 인해 특정 섹터인 바이오주 급락이 전체 시장을 끌어 내리는 양상이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코스닥의 본격적인 하락은 4월부터 시작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판매 허가 취소가 제약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 코스닥 시가총액 27위인 에이치엘비는 임상 실험에 실패했으며 7월에는 한미약품이 안센에 약 1조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비만·당뇨 치료제의 권리가 반환되면서 제약 업종에 대한 불안감은 확산했다.

4월 말부터 7월 29일까지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 순매도는 1조원 내외에 달한다.

▲ 대세 하락, 언제 끝나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듯이 코스닥지수의 하락은 언젠가 끝나고 반등에 나서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분석도 무색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중요한 지지선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12개월 주가수익률(PER)은 지난 4월 17배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이달 말 13배 수준에 이르렀다.

하인환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PER 저점이 12.8배"라고 지적했다. 이 수준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수준이 깨진다면 큰 폭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그는 "이 지점을 하향 돌파한다면 코스닥 지지선인 600선이 무너지고 바이오 업종은 물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미지근했던 2017년 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들인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쌓일 정도의 업황 개선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반등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오 섹터의 투자심리 냉각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의구심 증폭이 그 배경"이라며 "메지온, 헬릭스미스, 신라젠 등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한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9월말로 예정된 헬릭스미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 VM202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점)-한은 7월 전망에 빠졌던 對中 추가관세·日 수출규제·반도체 감산..1%대 성장 가시화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일본의 수출규제 등 온갖 악재가 분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초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춰 잡을 때까지만 해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 기관은 '소수파'였다. 주요 IB 중엔 노무라(1.8%)와 ING(1.5%) 등이 한발 앞서 1%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선 '고객 시선을 끌기 위해 지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의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둔 현시점에 1%대 성장률 전망은 이제 '다수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리스크였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확정 요인'으로 변해가면서 최악의 전망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美 대중 관세 반사이익 누렸던 韓, 계산서 내용 달라질 것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경제가 상반기에 전년 대비 1.9%, 하

반기에 2.4% 각각 성장해 연간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의 전망치인 연간 2.2% 성장을 달성이 가능하려면 3 분기와 4 분기에 각각 0.8~0.9% 수준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한은의 경제 전망에 포함되지 않았던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면서 2%대 성장을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감안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 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는 9 월 1 일부터 약 3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협상 재개와 추가 관세 보류에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미국은 이미 25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추가 관세 부가가 이뤄지면 거의 모든 중국산 상품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양국 정상의 추가 관세 보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깬 만큼 추가 관세 부과 직전까지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 월에 새로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상품의 경우 한국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는 사실상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 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 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한국산은 오히려 20.5% 늘었다. 중국의 대미 제재 품목 수입시장에서도 미국산(-36.9%)과 베트남산(-20.2%)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한국산은 -5.9%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한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다는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로 3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국내 업체가 중간재를 제공하는 중국산 제품 중 다수가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7%였고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약 79%였다. 미국의 추가 대중 제재가 가뜰이나 흔들리고 있던 국내 수출에 추가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감산 파장 클 듯..'명목성장률 1%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 역시 성장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의 통제 대상 품목이 1100 여개에 달하고 그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가 절반에 가까워 해당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한은은 일본 수출 규제의 파장 역시 지난 경제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투자 축소, 반도체 감산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이미 SK 하이닉스는 올해 낸드플래시 생산을 계획보다 축소하고 청주 M15 반도체공장의 추가 증설 시기도 주요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 일 2 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선 생산라인의 최적화, 효율화 전략을 통해 사실상 감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반도체 업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GDP 가 0.4%p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감산의 GDP 영향은 기업의 재고 관리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고 물량을 감안하면 반도체 감산이 이뤄진다고 해도 GDP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 등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중 무역 협상이나 반도체 감산이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이유 때문에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의 불확실성 요인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내 명목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정적"이라며 "올해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10%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세수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명목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이 됐다"고 말했다.

(시장진단)-달러/원 1200 원 초읽기 들어가자 외환당국 석 달 만에 개입 단행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튀어 오르자 외환당국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년 만의 최고치로 오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 1190 원대로 레벨을 한 단계 높인 환율이 미-중 무역갈등 악화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상승 압력을 높이며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이에 빅피겨인 1200 원 도달을 목전에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일본이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환율은 상승 보폭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결정 이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일본의 결정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키

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는 시점에 외환당국은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하며 환율 상승을 막아섰다고 다수의 외환딜러들은 추정됐다. 이에 환율은 4원가량 하락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7월 한 달 내내 외환당국이 꾸준히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강도 높은 달러 매도 개입은 지난 5월 환율이 1200 원을 넘볼 때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역내외 매수세에 곧바로 원위치로 돌아왔었는데, 환율은 2일 일중 고점에서 마감했다.

▲ 1200 원 곧 넘는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장 마감 후 역외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이 1200 원선을 넘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A 은행의 외환딜러는 "장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역외시장에서 환율은 1200 원선을 트라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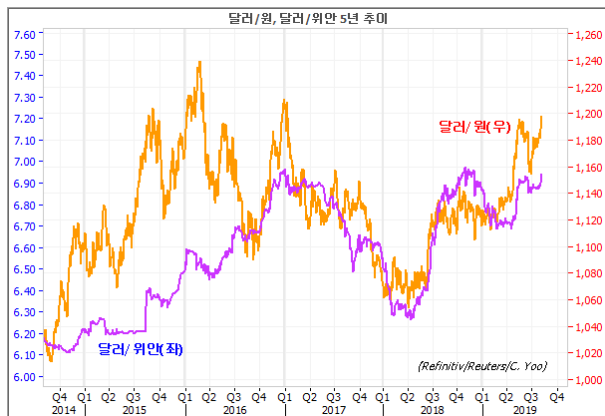
환율이 8월 들어 그간 단기 저항선인 1185 원선을 깨고 가파르게 오른 측면은 있지만 사실상 원화 약세 흐름은 그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연간 기준으로 원화는 달러 대비 6.5% 절하됐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한국 수출 부진에다 일본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원화 약세는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인데, 1200 원 레벨에 대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도 솔솔 나온다.

B 은행의 외환딜러는 "환율이 올라 리스크가 촉발되는 상황에서는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원화 약세를 이끌 재료들이 환율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면서 "1200 원이 못 갈 레벨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당국도 레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 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면서 "당분간 환

율이 1200 원을 오가면서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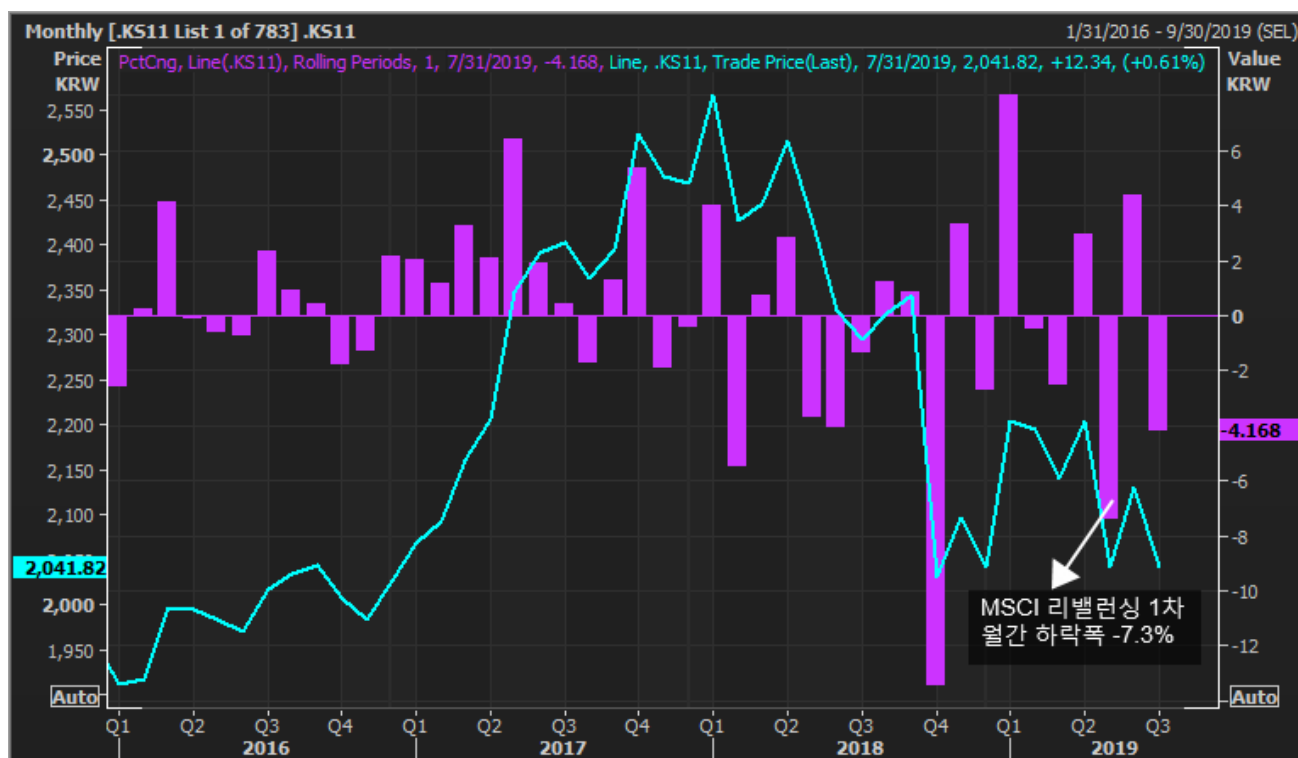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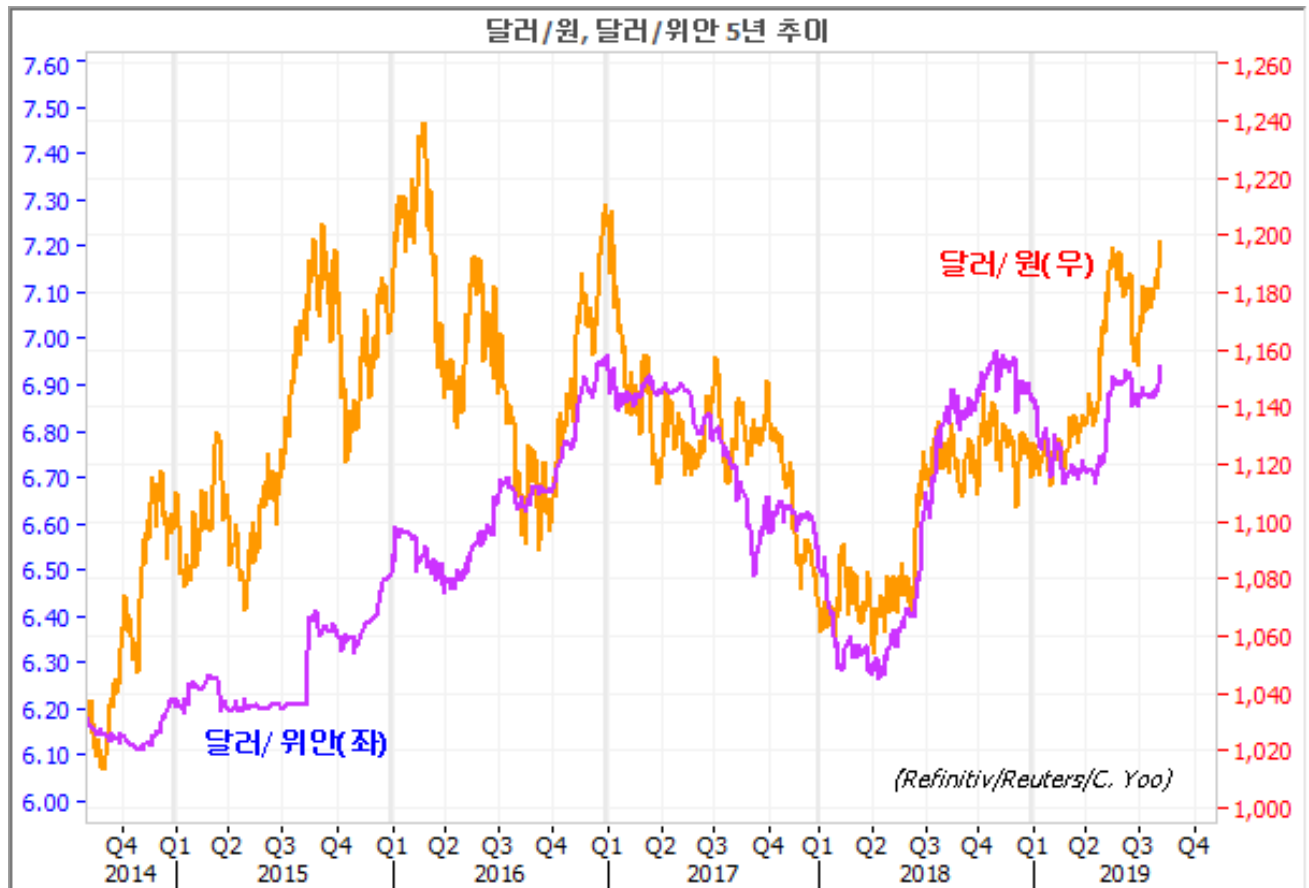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